

간화선 수행지침서 주요내용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발간을 준비 중인 간화선 수행을 위한 지침서는 선 수행의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화선 기초' '실참' '깨달음'을 단계별로 서술, 총 3부 13장으로 구성했다. 제1부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형성과정과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간화선이 왜 대승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화두의 결

택과 참구 등 실참을 다룬 제2부는 특히 스승의 역할과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병통과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마지막 제3부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이를 점검하고 인가하는 과정, 깨달음 이후의 중생교화와 사회적 역할 등을 상세히 밝혔다. 4월 중순 발간을 앞둔 간화선 수행을 위한 지침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기초⇒실참⇒깨달음 단계별 정리

초심자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4월 중순 발간

제1부 기초단계

제1장 조사선의 그 역사적 전개

조사선은 역대 조사들이 '본래성불(本來成佛)'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인 것이다. 부처님은 성도후 45년간 쉬없이 법을 설하면서 자신의 깨달은 세계를 마하가섭에게 전하신 것처럼, 조사선은 인도에서 건너와 중국 조사선 조조가 된 달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혜능으로 이어진 33조사는 중국 선종의 큰 물줄기를 형성했다.

한국은 9세기경 신라말과 고려초의 당나라 유학승들로부터 전해진 육조 혜능의 조사선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고려에서 구산선문을 열어 한국 조계종의 선맥을 확고히 했다.

간화선의 정착은 고려말 태고보우, 나옹혜근, 백운경한 세 선사에 의해서다. 조계종의 중흥조로 인정받는 보우는 화두참구-깨침-본색중사-구경결백의 간화선 수행체계를 명확히 밝혀 간화선을 한국선의 주된 수행법으로 정착시켰다.

제2장 간화선의 개관

간화선이란 '화두를 간(看)하여 본래 성품자리를 곧바로 보는 것'이다. 간화선이 모든 수행법 가운데 뛰어난 것은 화두를 들고 그 자리에서 견성성불하기 때문이다. 조사선과 간화선의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같다. 시대적 의미가 그렇게 구분을 나뉘었을 뿐, 간화선 속에는 조사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만 간화선은 '화두'라는 것을 방편으로 '정형화'하고 '체계화'한 것일 뿐이다.

간화선이 대승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인 이유는 간화선이 부처님과 가섭으로부터 이어져온 조사선의 전통을 가장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과 행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롭다. 또 간화선은 화두 참구를 통해 분별의식의 흐름을 끊는 뛰어난 힘을 갖추고 있는 수행법이다.

제3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간화선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으신 존재의 실상의 정도·연기·무아·공으로 표현했다. 선은 부처님께서 밝힌 이 진리를 당장 이 자리에서 환히 드러내 보이는 길이다. 간화선은 가섭을 위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이 얹화미소를 보이고,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만들어 앉으며, 사량성수 아래에서 열반 후 무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신 일 등 '삼처전심(三處傳心)'의 일화로 이심전심의 법을 가섭에게 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뿌리로 여기고 있다.

경전 밖에 따로 문자를 전하지 않는다는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가르침은 중도·연기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수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4장 간화선의 기초수행

선에 들기를 원하는 초심자는 본래불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비·지혜·원력을 세우야 한다. 또 불퇴전의 정진력, 계율의 실천, 화두 참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마지막으로 '정견'을 확립해야 한다.

선 수행에 앞서 교(敎)와 계(戒)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교인선은 말에 말리지 말라는 뜻일 뿐 교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며, 간화선 수행자라 해서 계율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참선 수행자에게는 계는 굳이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제2부 실참 단계

제1장 화두의 결백

'화두(話頭)'란 단순히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유와 분별의 통로를 막기 위해 선사들이 사용하던 말이다.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는 화두는 공안(公案) 또는 고칙(古則)이라고도 한다. 화두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로 몸과 마음에 의심의 열기를 가득 채워, 마침내 그 의심이 독이 터지는 경지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두도 발심이 온전치 안 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다. 자신이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의 단계인 발심이 없이는 화두를 들 수도, 타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발심은 생각 곁돌 뛰어 넘어 근원적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한다. 화두는 발심 후 선 지식으로부터 내려 받게 되는데, 대개 자신의 근기에 맞게 딱하고 걸고리에 물리듯 걸리는 것이 자신의 화두가 된다. 일단 한번 정한 화두는 함부로 바꾸지 말고 의심의 끈을 타파하려 노력해야 한다.



조계종 최초로 발간되는 간화선수행법을 위한 지침서는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초·실참·깨달음으로 간화선 수행의 단계를 나눠 구체적 수행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화두참구에 열중하고 있는 재가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제2장 지도자의 역할

선수행에 있어 스승은 한수행자의 온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발심하고 스승에게 법을 묻고, 참구를 통해 의단을 풀고, 다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는 순경계와 역경계를 헤쳐 나가는데, 눈밝은 선지식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어록에는 제자가 선지식을 만나서 깨치는 과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수행을 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순경계와 역경계를 헤쳐 나가는데, 눈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제3장 화두의 참구 단계

화두 참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無)'자 화두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초심자는 우선 무자 화두의 무자 앞에 '전제'를 붙여 들든지, 아니면 좀 막연하게 '무' 그대로(단제)를 든다. 참선을 시작할 때는 '전제'와 '단제'를 섞어 사용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단계 만들게 된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주 스님은 "무"라고 대답한 것을 놓고 참구할 경우, "무라?" → "왜 무라 했을까?" → "왜 무라...?" → "왜...로 지금의 의심을 이어 나가는 것일까?"

이 화두를 참구하기 위해서 <선어>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화두공부를 통해 반드시 깨칠 수 있다는 믿음, 나도 깨칠 수 있다는 분심, 깨달음을 위한 간절한 의심이 화두공부의 필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화두를 올바르게 들기 위해서는 '의정(疑情·의심이 일순하여 끊어진 상태)'과 '의단(疑團·의정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는 단계)'의 상태를 거쳐야 한다. 의정에 넘쳐 다른 무엇도 범접하지 못하는 상태를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하는데 이경지에 이르면 다시 '은산철벽'을 뚫고 '확철대오' 해야 한다. 또 화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고'나 '무'를 연습하듯이 외우거나 주위에 몰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화두 참구자는 끈질김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제4장 병통의 극복

알음알이로 분별하는데만 익숙한 수행자가 처음 화두를 들었을 때 병통을 일으키게 된다. <서장>은 '무'자 화두의 예로 이러한 10가지 병통을 해결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대혜 스님은 ①답아·없다로 이해하지 말라 ②이치로 이해하지 말라 ③분별하여 헤아리거나 알아맞히려 말라 ④논설 읊조림이나 논 감각임에 알음알이를 두지 마라 ⑤말과 글의 틀로 삼립살이를 짓지 말라 ⑥일없이 머물러 있지 말라 ⑦의정 없이 화두를 들어 알려고 하지 말라 ⑧문자를 끊어와 증거삼지 말라 ⑨유무를 초월한 참구가 있다 생각 말라 ⑩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러한 깨달음은 선사들뿐만 아니라 방자사, 한퇴지, 백낙천, 배후, 소동파, 부설 거사 등 재가자이면서도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많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깨침과 뒤움의 문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었다. 육조 혜능의 남종선은 '돈오'를, 신수의 북종선은 '짐오'를 주장했다. 돈오돈수는 단백에 깨치므로 더 이상 뒤움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만, 돈오점수는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혜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를 삼매하 하는데, 선에서는 이런 삼매의 경지도 그 정도에 따라 행주좌와와 어묵동정이 항상 밝고 깨어있는 '동정일여(動靜一如)', 화두가 꿈속에서 변함이 없는 '몽중일여(夢中一如)', 깨어있거나 잠들었거나 항상 화두가 들리는 '오매일여(寤寐一如)'로 구분하고 있다.

제3부 깨달음의 세계

제1장 점검과 인가

점검은 수행자가 선지식에게 자신의 공부정도를 물어 확인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을 제야무리 확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샅된 길로 들어서는 불행할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참구한 화두를 놓고 선지식은 깨달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감변(勘辨)하는데, 이때 선지식은 수행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그 정도를 확인한다. 이것을 통해 공부자 모자라면 다시 정진하고, 인가를 얻으면 스스로도 한층 의혹 없이 '확철대오' 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의 점검은 선지식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마땅치 못할 경우 조사어록을 의지해 스스로 공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혜의 <서장>, 서산의 <선가귀감>, 나옹의 <나옹어록>에는 이러한 공부점검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영명의 <중경론>에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완벽하게 견성해 대낮에 물건을 보듯 지혜가 밝은가? ②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대처하며,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발을 들고 내리며 눈을 감거나 뜨는 것이 모두 도와 상응하는가? ③ 부처와 조사의 말을 깊이 듣고도 두려워 않고, 이들의 모두 살펴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가? ④운갖 질문에도 능히 사변(四辯)을 갖추어 모든 의문을 풀어 줄 수 있는가?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깨달음의 세계

<서장>에서는 화두를 타파하여 깨닫게 되면 꿈에서 깨어난 듯 하고 하늘에 백천개의 해가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깨달음은 역경계(逆境界), 순경계(順境界), 선경계(善境界), 악경계(惡境界) 고요한 경계나 시끄러운 경계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어떤 별천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삶이지만 추후의 의심도 없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정확하고 또렷해진다.

이러한 깨달음은 선사들뿐만 아니라 방자사, 한퇴지, 백낙천, 배후, 소동파, 부설 거사 등 재가자이면서도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많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깨침과 뒤움의 문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었다. 육조 혜능의 남종선은 '돈오'를, 신수의 북종선은 '짐오'를 주장했다. 돈오돈수는 단백에 깨치므로 더 이상 뒤움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만, 돈오점수는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자리를 단백에 보는 돈오는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아 더 이상 뒤움 것이 없다고 단백에 깨치면 단백에 깨달더라도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로 더 뒤우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제)간화선 수행지침서' 목차

제1부 기초단계
제1장 조사선의 그 역사적 전개
조사선의 의미와 그 흐름/ 한국선의 역사와 전통/ 우리나라 조사선 개관
제2장 간화선의 개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간화선이 지닌 조사선으로서의 특징/ 간화선이 본래성불을 강조하는 이유/ 역대조사들의 수행 및 깨달음의 기원과 간화선/ 간화선은 왜 최상승법인가?/ 간화선에서 보는 견성의 내용/ 재가자도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제3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간화선
부처님 말씀과 마음, 그리고 간화선/ 화두 참구법과 연기, 중도의 구조/ 불립문자·교외별전과 간화선/ 화두를 참구할 때 부처님 말씀도, 역대조사의 말씀도 듣지 말라고 한 이유
제4장 간화선의 기초수행
간화선에서 정견의 확립이 중요한 까닭/ 간화선의 기초수행 어떻게 해야 하나?/ 간화선에서 바른 세계관을 중요시 하는 까닭/ 간화선 수행에 앞서 교(敎)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 간화선 수행과 제는 어떠한 관계인가?

제2부 실참 단계

제1장 화두의 결백
화두란 무엇인가?/ 발심과 화두참구/ 화두를 참구하려면 어떻게 발심해야 하나?/ 수행자 자신에게 꼭맞는 화두는 있는 것인가?/ 화두는 언제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화두는 평생 하나만 참구해야 하는가?/ 화두는 기존의 천황백 개 공안만 사용해야 하는가?
제2장 지도자의 역할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과 지도방법/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선지식을 찾아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 수행자는 스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나?/ 주변에서 점검 받을 선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참 의심을 일으키려면 왜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한가?/ 초심스승이 범문하고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가?/ 구참 수행자들도 수행지도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밖의 방법은 없는가?/ 선원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공부를 탐마해 가야 하나?

제3장 화두의 참구 단계
화두참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대신심·대분심·대의심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 의정, 의단, 타성일편, 은산철벽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것과 관하는 것의 차이점/ 화두가 들리지 않을 때 주력이나 송화두, 염화두를 해도 되는가?
제4장 병통의 극복
화두참구에서 열 가지 병통을 벗어나는 법/ 속혹심과 분발심의 차이/ 상기 다스리는 법/ 혼침과 도거를 다스리는 법/ 색욕과 수마를 극복하는 법

제5장 일상생활에서 화두 참구법
정중공부를 해야 동중공부도 들어갈 수 있는가?/ 일상생활이나 만행중에도 화두를 행하는 법/ 일상공부와정에서 역경계와 순경계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화두참구와 장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재가자가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 수 있는가?
제6장 화두 수행과 삼매의 단계
화두참구와 성성적적/ 화두참구에서 득력처란?/ 화두참구시 불자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화선에서 말하는 삼매란?/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의 세 가지 단계란?/ 상근지 중생은 한마디 말씀에 화두를 타파할 수 있는가?/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화두가 일순하다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제3부 깨달음의 세계
제1장 점검과 인가
점검과 인가란 무엇인가?/ 점검과 인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점검과 인가과정의 실례/ 스스로 공부를 점검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제2장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깨치면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가?/ 깨달음에 대한 자기점검 기준은 있는가?/ 깨달음과 성성적적의 관계는 어떠한가?/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란?/ 깨달으면 역순경계에 이끌리지 않는 까닭/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는가?
제3장 간화선과 중생교화
깨달음은 이는 중생교화를 어떻게 하나?/ 간화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